사지·대형불화… 최신 조사·연구 결과 '한눈에'

불교문화재硏·성보硏, 문화재청 공동 조사서 발간 잇달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문화재 연구기관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 기초 연구 조사 사업에 대한 결과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해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담은 〈한국의 사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발간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나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논산 개태사지 등 26개소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사지 348개소 등 총 374개소를 조사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역(寺域), 유구·유물 현황, 식생(植生),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정리·수록했으며 항공사진, 세부사진과 출토 문화재의 사진을 첨부했다.

또한 문헌, 학술논문, 일제강점기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망라해 개별 사지의 연혁,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아산 신봉리사지2·3, 서산 보현사지 등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지 20개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서산 보현사지는 18세기의 문인 이철환이 서산 가야산 일원을 유람하고 쓴 기행록 〈상산삼매(象山三昧)〉에 언급되어 있는 곳으로 기록을 토대로 위치를 탐색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사지 내에서 석탑재가 새롭게 발견되어, 가야산 내 중요 불교유적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임을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 신봉리사지3은 고용산 정상에 있는 사지로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 전기 마애여래좌상을 새롭게 조사했으며, 다량의 유물을 포함한 사지의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형불화인 괘불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 하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7년도 '대형불화 정밀조사'의 성과를 담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3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사지-충남권〉(사진 왼쪽)과 성보문화재연구소의 〈대형불화조사〉(사진 오른쪽) 보고서. 모두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사업의 결과물이다.

'한국의 사지-충남권'

충남 374개소 사지 현황 수록

문헌, 일제시기 자료 등 망라

미확인됐던 사지 20곳 조사도

'2017 대형불화 조사'

전국 사찰 소재 괘불탱 7건 조사

정밀실측·채색정보 등 연구 수록

흥국사괘불탱 재질 비단으로 확인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총 7권으로 △국보 제301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62호 용봉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79호 죽림사세존괘불탱 △보물 제1331호 흥국사노사나불괘불탱 △보물 제1342호 미황사괘불탱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 △상주 남장사영산회괘불탱(비지정)를 조사·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7건 괘불탱의 현황과 정밀실측, 분석, 채색정보, 문양 등에 대한 원형 자료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채색기법 연구를 통해 제작방법을 검증하고, 전통 안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장 조채를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성과들도 상당한 수준이다. 보물 제1331호 흥국사노사나불괘불탱의 경우 기존에는 삼베(麻布) 바탕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를 통해 바탕 재질분석 결과 비단에 그려졌음이 확인됐다.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은 화면에서 총 151개의 범자가 확인됐으며, 존상의 신체에 기록된 것은 〈조상경(造像經)〉의 불복장 의식과 동일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지정 문화재인 남장사영산회괘불탱의 경우 괘불탱 관련 유물(불사성공록, 복장낭, 보관함, 복장유물 등)을 전수 조사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염불신행' 주제 학술 공모 열린다

韓불교학회 4월 27일까지 5월 25일 춘계대회서 시상

염불신행의 학술적 고찰을 위한 학술상 공모가 진행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염불신행에 대한 불교학적 고찰'을 주제로 한 불교학술진흥상을 공모한다.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술상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세부 연구 주제는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염불신행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조망 △염불신앙을 통한 가피(加被)의 사례 연구 등 2가지다.

작성 원고 언어는 한글과 영어이며, 분량은 한글은 200자 원고지 100~120매·영어는 1만 단어 이내이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논문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대상에게는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2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100만원이 수여되며, 〈한국불교학〉68집에 수록된다.

이와 함께 춘계학술대회는 '불교와 불교학, 현재의 반성과 미래의 지향 - 인간을 고민하는 불교학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다.

불교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연구의 한계와 전망 △불교사상사 연구, 개념과 현실 사이의 잃어버린 접점 등의 연구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을 함께 배워요

명상심리상담학회·BTN, 12월까지 월례강연회

3월 22일 첫 강연회 시작

스트레스 관련 전문가 강의

인경 스님 명상교육도 함께

현대인의 최대 고민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알아차림 명상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월례 강연이 열린다.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BTN불교TV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월례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월례 강연회의 특징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심리학적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전문가 강연과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을 익힐 수 있는 교육·시연으로 나눠 진행된다는 점이다.

3월 22일 열리는 첫 강연회에서는 김정호 덕성여대 교수가 스트레스의 이해를 주제로 스트레스 관리 강연을 하며, 이후에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이 알아차림 명상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한다.

총 10강에 거쳐 이뤄지는 월례강연회에는 스트레스 관련 심리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주요 강사로는 동방문화원 책임교수 동진 스님, 김상임 블루밍경영연구소 대표코치, 김창중 동양대 교수, 김광호 조우코칭 상담센터장, 김동성 마음텃밭 명상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다. 알아차림 명상 교육은 인경 스님이 담당한다.

강좌는 매 강연 200명 선착순 마감이며 목우선원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홈페이지(medicoun.com)서 접수 할 수 있다.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15,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사전접수할 경우 5천원이 할인된다.

인경 스님은 "경쟁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과 명상을 통한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성평등적 불교, 출·재가 인식 개선 우선

주목할 만한 박사 논문 ②

김동윤의 '여성 불자 신행연구'

초기·대승 여성관 분석해

평등·불평등적 요소 살펴

구체적 대안 제시들 '눈길'



불교여성개발원이 개최한 승만보살 10대원정진 100일 회향 수계법회의 모습. 성평등적 불교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에 대한 출·재가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자료 사진

불교 여성관과 재가여성 신행을 분석하고 성평등적 불교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제시를 담은 박사 논문이 발표됐다.

김동윤 박사는 논문 '여성 불자 신행연구'를 통해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서 올해 상반기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초기·대승 경전에 나타난 여성관과 재가 신행을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불교 여성관을 제언했다.

김 박사는 "불교는 깨달음을 향한 종교이며 그 깨달음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란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근본적으로 붓다의 여성관은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붓다께서 칭찬한 재가 여성도 상당수"라며 "붓다는 재가여성 제자에 대한 그 어떠한 차별적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해 불제자다운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불평등적 요소로 지적받는 '비구니 팔경계'에 대해서도 김 박사는 당시 여성 출가를 허용하기 위해 붓다가 제시한 방편이라고 봤다.

김 박사는 "인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일소하고 여성들을 승단내로 받아들일 경우에 오는 불교 내외의 파장을 고려해 붓다는 여성의 출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붓다 제세에도 500 비구니가 출가했다. 그들을 경전 결집 때 배제한 것은 제자단의 보수성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비구들만 참석한 경전결집 대회 때에 붓다의 일화 중 여성에 관계되는 것들이나, 비구들의 행적에 대한 부분들이 탈락되었을 것"이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불교 여성관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여성 존중을 위해 출재가 인식 개선과 여성 권익을 위한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김 박사는 제언했다.

김 박사는 "의식 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은 출가자나 재가 모두에 대한 '상호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상호 존중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승가대학이나 사찰불교대학 등에서 기본적으로 이수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고성 옥천사 소재 성보들의 특징은

동불연 3월 24일 학술대회

고성 연화산 옥천사의 불교문화재들의 특징들을 연구·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고성 옥천사는 3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고성 연화산 옥천사의 불교문화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요정 충북대 목재연륜은행 선임연구원의 '연륜연대분석을 통한 옥천사 목조나한상의 제작시기 고찰', 대구 길상사 주지 도해 스님의 '〈옥천사사적기〉 번역과 의미',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고성 옥천사 대웅전 석조불상 연구'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